

동국대 '산 넘어 산'

2006년 건학 100주년을 앞둔 동국대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중앙대 필동병원 건물 매입 의혹, 2학기 교수임용 잠음, 교비 341억 환수 방안 마련, 일산불교병원 개원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지난 7월 6일 제200차 동국대 이사회회의 매입승인으로 일단락 된 듯 했던 중앙대 필동부속병원 매입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근 동국대 재단 박도근 전 감사는 중앙대 필동병원 매입과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홍기삼 총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칫 이번 고발사건으로 동국대는 종립대학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박 전감사는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남기춘)의 고발인 조양태와 매매가 260억원에 매입을 합의 했으나 2월 10일 이사회 동의 절차도 없이 총장이 직접 274억원(계약금 130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학교측에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중대병원 매입과정에 비리있다” 검찰 고발 2학기 교수임용 싸고 학교-교수 마찰 교비 341억 환수 결정...자금 마련 고심

이와 관련해 동국대 관계자는 "탁상감정을 통해 적정가를 확인했고, 승인절차만 없었을 뿐 이사회 모두 동의 했던 사안으로 문제가 될 것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국대는 박 전감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감사는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해 "100년 역사의 학교가 이렇게 쇠락한 것은 책임 있는 자리의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지 못한 탓이며, 감사 결과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항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2학기 교수임용 과정의 파동도 계속되고 있다. 역사교육학과 교수 4

명이 8월 18-20일까지 전임강사 윤 모 씨의 임용을 반대하는 단식에 들어가는 등 학교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대학 당국은 그동안 일부 교수들이 학교 내 담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임용 과정의 잠음은 비단 역사교육학과 뿐만 아니다. 이처럼 교수임용 때마다 잠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동국대의 교수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교수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제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 한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국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산 불교병원으로 들어간 교비 341억원의 환수 문제도 심각하다. 당초보다 약 77억 원 정도 감액된 액수지만 현재 동국대 재단이 감당하기에는 누가 봐도 벅찬 금액이다. 8월 13일 교육부에 보고한대로 당장 오는 12월까지 100억원을 학교 세입회계로 환수시킬 경우 재단 자산운영에 적잖은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일산 병원개원 문제도 여전히 안개속이다. 이달 초 교육부의 직제 관련 정관 승인이 이뤄졌지만 병원장 인선과 의료진 확보, 개원자금 마련 등의 난제가 수두룩하다.

참여불교계자언대 한 관계자는 "화합을 가장 큰 목표로 가르치는 불교계 종립대학의 분열된 모습을 불자들이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건학 100주년을 앞둔 동국대의 총체적 난관을 타개할 불교계의 전체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지울 스님 · 천성산 살리자”

시민단체연합 ‘도룡농소송시민행동’ 발족

서울·부산서 참회법회·시민대회 개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못한다”

지울 스님의 단식이 8월 20일 현재 52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천성산과 지울 스님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룡농 소송인단 100만인 모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도 나선 것이다.

78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도룡농소송시민행동’은 8월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 지울스님 단식진장 앞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발족식에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대선공약으로 백지화를 약속했던 것이 50일이 넘는 단식의 뿌리”라며 “지울 스님이 쓰러질 경우 정권의 운명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상황은 매우 긴급하다”며 “청와대의 결단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도룡농 소송 100만인 서명 범불교운동본부는 8월 18일 서울 우정국로에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구간’의 바쁜 국책사업 실행을 위한 범불교운동본부 참회법회를 개최했다.

5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법회에서 백장기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은 “조계종단에 드리는 촉구문”을 통해 총무원과 중앙총회와 이 문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했다. 손산신 중앙신도회 부회장도 대정부 촉구문을 통해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환경영향 및 안정성 조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인 6개월간의 공사중단을 즉각 약속하라”며 “이미저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이후에 일어난 모든 불미스러운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준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영터리 환경영향평가서 폐기와 천성산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대회’가 열렸다. 생명파괴에 대한 참회로 시작된 이날 시민대회는 94년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서와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관통의 문제점, 생명서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파괴프로젝트 영터리 환경영향평가서 폐기식을 개최했으며 환경사건진, 100만 도룡농 소송인단 모임 서명운동도 함께 벌였다.

김지하 시인, 문정현 신부,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박병삼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박수를 보냈다.

사회 각계 대표 20여명은 16일 지울 스님 단식진장



시민단체대표들이 8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도룡농 소송 시민행동’을 출범식을 끝내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에서 모임을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지울 스님 살리기’가 우선인 ‘천성산 살리기’가 더 중요하기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대표단을 구성해 문제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만나 해결점을 모색했다.

문 수석과 만난 박광서 참여불교계자언대 상임대표는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는 사법부에서 관할하는 문제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들었다”고 말해 문제 해결에 청와대 측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켰다.

환경부도 16일 “고속철도공단이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사실상 6개월 공사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14일부터 묵언집회에 들어간 지울 스님은 1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쓴 편지에서 “천성의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지난날 당신이 ‘공약’했던 원칙과 약속이 아니라면 고향의 냇가에 발목을 적시고 미래를 꿈꾸었던 소년의 이름으로... 천성산의 이름이 제게 빛으로 왔듯이 상처 입은 천성은 당신에게도 빛으로 다가갈 것입니다”라고 적어, 이는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천이희 · 남동우 기자

불교환경정책 5개년 사업 착수

조계종 환경위원회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불교환경의 제 21 초안을 바탕으로 불교환경정책 5개년 계획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조계종 2기 환경위원회(위원장 지현)는 8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중점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올 8월부터 10월까지 전반기 22일이 포함된 팀을 구성, 불교환경의 제 21 초안을 바탕

으로 연구·조사를 거쳐 불교환경정책 5개년 계획 기초안을 마련한다. 또 사찰환경 기초시설 타당성 연구 용역과 불교 환경정책 5개년 계획 세부계획 타당성 연구도 실시된다. 회의에서는 또 올 9월에서 10월 경 불교환경의 제 21을 확정 및 발표하고, 9월 교구환경환경위원회와 환경위원회가 참석하는 교구환경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2기 환경위 상임 운영위원장에 명성 스님(구례 화엄사 주지)을 선출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13대 포교 핵심과제 선정

일회 추진 △조계종 핵심 신도 육성

일회 추진 △조계종 핵심 신도 육성 방안 마련과 추진 △중앙-교구-말사 포교행정시스템 구축 및 포교단 회의실에서 제6차 포교총책연찬회를 개최하고, 불교 내·외부 포교환경 분석결과 검토 및 1-5차 포교총책연찬회서 제기된 쟁점사항 검토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토론 결과 △조계종의 사상문화 정립 △조계종 신도 교육체계 정립 △신도 수행 정책의 수립과 추진 △신도 교육·수행·포교프로그램 개발 지원 △중산 의례의식의 한글 통

일회 추진 △조계종 핵심 신도 육성 방안 마련과 추진 △중앙-교구-말사 포교행정시스템 구축 및 포교단 회의실에서 제6차 포교총책연찬회를 개최하고, 불교 내·외부 포교환경 분석결과 검토 및 1-5차 포교총책연찬회서 제기된 쟁점사항 검토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남동우 기자**

북한산을 사랑한 죄로...

북한산 관동도로 저지 운동 일선에 나섰던 환경운동가들이 업무방해죄로 총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의정부지원은 지난 7월 1일 김혜정(당시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안창희(당시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윤주옥(당시 국립공원유지

키는 시민의모임 사무국장)에게 각각 300만원, 박선경(당시 우이령보존회 사무국장, 김은숙(당시 환경운동연합 녹지보전담당 간사)에게 각각 200만원 등 총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북한산을 사랑한 죄로 북한산관동도로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고, 이제 범법자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주옥 사무국장은 “목숨보다 소중한 생명사랑 정신을 민들레 흩날처럼

은 세상에 널리널리 울곧게 퍼뜨리고 싶다”며 북한산 사랑을 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8월 26일 낮 3시부터 밤 12시까지 서울 종로 시민회관에서 벌급 마련(후원계좌 : 국민은행 024801-04-070220 예금주: 윤주옥(북한산))을 위해 일일호프를 여는 등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전히 ‘북한산’을 회두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 불교계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남동우 기자**

승가교육제도 현황·과제 점검 승가수 실무위 19~20일 워크숍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종범) 실무위원회는 승가교육제도의 현황과 이후 추진과제 설정을 위한 제1차 워크숍을 8월 19~20일 유성 스파피아 호텔에서 개최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이날 교육원이 준비한 승가교육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우선 점검했다. 조계종은 교육원 출범 10년차를 맞아 승가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기초교육, 기본 교육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실무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

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하

기 이전에 종단의 승가교육의 이념과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차후 단계별 과정보표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실무위원 지안 스님, 무관, 종목, 설우, 계성, 현관, 일진 스님, 영산대 김종명 교수 등 선원, 율원, 강원, 재가 전문가가 참가했다. **조용수 기자**

설기문 박사의

최면 - 빙의치유 세미나

지난 1997년 국내에서 최초로 ‘최면-전생 상담’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여 많은 전문 제자를 양성하고 회제를 불러일으켰던 이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설기문 박사가 풍부한 학습 연구 및 임상경험을 기초로 한 보다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내용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명	빙의치유 과정	참고 사항
교육일정	9월 9 ~ 10 일, 9월 16 ~ 17 일 (매주 목 ~ 금요일) 교육시간: 매일 10:00 ~ 18:00	
교육비	200만원 (마감일 이전 기준) ※ 마감일 이후는 210만원임	
교육내용	① 최면치료와 전생치유에 있어서의 빙의의 문제와 빙의치유 ② 빙의현상의 특징 ③ 치유적 대화의 원리와 기법 ④ 볼드윈 6단계 빙의치유 과정 ⑤ 빙의 진단법 ⑥ 영가와 대화법 ⑦ 빙의령 퇴치를 위한 명상법 ⑧ 빙의치유에 있어서의 주의점	① 세미나 준비와 진행 관례로 사전 예약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반드시 9월 4일까지 예약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3명 이상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③ 구체적인 세미나 장소와 찾아오시는 요령은 등록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④ 수료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을 드립니다. ⑤ 개인사정에 의해 특정 시간에 결석할 시에는 다음 차수 때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료증은 완전 출석을 하였을 때 드립니다) ⑥ 인근에 숙박시설이 많이 있으니 활용 가능합니다. ⑦ 각종 단체나 개인의 강의, 강연, 개인 상담 요청을 환영합니다. ⑧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나 e-메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 소	경기도 안양시 안양9동 수리산 기슭 (창박골) ☞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서 2km 거리에 위치함. ☞ 안양역은 영등포와 수원에서 각각 지하철로 20분 거리에 위치함.	
등록방법	참여희망자는 9월 4일까지 아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고 반드시 별첨에 제시된 연락처의 전화나 e-메일로 확인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128-05-0000-897 (예금주: 설기문)	



■ **빙의의 특징:** 빙의란 다른 영가가 침입하여 심신의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 결과 의학적으로 진단이나 치료되지 않은 심신의 고통을 받게 되며 심한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빙의의 문제는 민간에서는 주로 굿의 형태로, 불교에서는 천도제와 같은 형식으로 처리되었다. 구체적으로 빙의환자가 보이는 특징으로는 우울증, 불안증세와 같은 심리적 증세, 원인 불명의 질병, 혹은 사람의 생전 병을 앓는 경우, 혹은 사람 꿈을 반복하여 꾸는 경우, 환각현상이나 급성 또는 만성 병을 들 수 있으며 임신이 안 되거나 누통, 관절염이나 요통을 앓는 경우에도 낙태된 영가의 빙의를 의심해볼 수 있다. 아울러 천도제 중이나 후에 빙의증세를 보이며 몸부림치거나 반항하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으며 기도 중에도 이상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영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볼드윈 박사의 6단계 빙의치유법:** 빙의치료는 구미 선진국에서 주로 최면치료, 전생치료 전문가들에 의해 임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빙의진단법과 치유법은 미국의 볼드윈(William Baldwin) 박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는 처음에 최면-전생퇴행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반수이상의 환자들이 영적 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몇 년간의 임상경험 결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얻고 빙의치유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되었다.

■ **강사소개:** 설기문 박사는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 대학원(석사) 졸업, 미국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대학원에서 박사학위(상담심리학 전공)를 취득하였음. 1986년부터 동아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1996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각각 객원 교수를 역임함.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상담학회 공인 상담전문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면과 전생치료, NLP, 시간선치료, 빙의치료 분야를 공부하고 국제공인 NLP 트레이너, 최면치료 트레이너, 전생치료전문가 자격증을 각각 취득함. 미국최면치료협회와 국제전생치료협회의 전문회원임. 특히 빙의치료의 최고 권위자인 미국의 볼드윈 박사에게서 전생치료 및 빙의치료법을 직접 배웠음. 1997년에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최면-전생 상담’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로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최면-전생상담을 보급하였음. 그 과정에서 KBS, MBC를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에서 다수 보도된 바 있음. 특히 1998년에 KBS-TV에서 전생에 ‘독립군’이었던 여인에 관한 내용이 방영되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음. 특히 2001년 이후에는 미국에서 더 심화된 최면-전생-빙의치료, NLP (신경-언어프로그램) 분야를 공부하였고 재미 교포들을 대상으로 강의 및 임상 활동을 하였음. 저서로는 ‘최면과 전생퇴행’, ‘최면과 최면치료’, ‘설기문과 아내의 환상적 전생 이야기’,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가 이렇게 아픈걸까?’와 같은 최면-전생치료 관련 저서와 NLP파워, NLP와 건강, NLP의 원리,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등이 다수 있음. 현재는 마인드피트니스 코리아 원장으로서 개인상담과 치료, 초경 강사의 및 강연, 세미나 개최, 집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